조달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3. 12. 21.(목)

「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」

공공조달·정책금융 시너지...혁신형 기업 탄탄한 성장 토대 구축

- 2023년 조달청,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들과 정책공조 완성
- 공공판로에 금융까지 패키지 지원...4천여 기술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효과 기대

조달청(청장 김윤상)은 **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 정책금융기관과** 손을 잡고 **혁신적 기술기업 금융·투자 지원을 위한 확실한 기반**을 구축했다.

조달청은 올 하반기 **기술보증기금**(9.13), **기업은행**(9.21), **산업은행**(11.17), **수출입은행**(11.29)과 **금융지원 업무협약**(MOU)을 **체결**했다.

이러한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제품·우수제품·벤처나라·지패스 지정기업 등 **4천여개에 가까운 혁신적 조달기업**들이 △ **대출금리 우대**, △ **환율 수수료 감면**, △ **기술보증 수수료 인하** 등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. 업무협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조달기업들이 **대출과 기술보증에서 우대를 받은 금액**이 각각 **2,300억원**과 **548억원**으로 집계되어 내년에는 지원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.

특히 지난 11월 17일 조달청과 산업은행이 공동 기획한 **「KDB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」**와 같이 혁신적 기술기업이 **투자자금을 직접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인 투자설명회**(IR)**가 내년에는 정례화**될 예정이며, 벌써부터 많은 조달기업들의 **관심과 기대**를 받고 있다.

「KDB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」에 참여했던 **기업 관계자는** "조달청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투자설명회는 **많은 벤처투자자**(VC)

에게 창업기업의 기술력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”며 “설명회 이후 현재 **투자자들의 문의**가 이어지고 있고 **투자금 유치**가 성공하면 **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진행**할 계획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

조달청과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공조는 공공판로 정책과 시너지를 일으켜 대출이자와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**기술 혁신, 해외시장 개척** 등 **기업경영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**줄 것으로 기대된다.

내년부터는 기업은행의 ‘창공(創工)’과 같은 **정책금융기관의 창업·벤처 육성 프로그램**과 혁신제품·벤처나라 등 **조달청의 판로지원 제도를 상호 연계**해 금융시장과 조달시장에서 각각 발굴된 **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공동 지원**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	책임자	과　장　　임영훈 (042-724-7305)
		담당자	사무관　　김정은 (042-724-7347)

참고자료

□ 금융지원 대상기업

<혁신적 기술기업 현황(`23.11월말 기준)>

구 분	계(중복제거)	혁신제품	우수제품	벤처나라	G-Pass (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)
기업(개)	3,884	1,492	992	1,246	1,206

□ 정책금융기관 업무협력 주요 내용

구 분	MOU 일시	주요 협력 분야
기술보증기금	9.13.	❶ 기술보증 수수료 인하(0.2%p, G-PASS는 0.3%p) ❷ 보증심사 완화(최대 2억원까지, 심사 대상은 6개월 이내)
기업은행	9.21.	❶ 금융상품 안내, 환율수수료 우대(60% 감면) 등 수출금융 지원 ❷ IBK창공 투자프로그램과 연계
산업은행	11.17.	❶ 금융상품 안내, 해외송금수수료 50% 감면 등 무역금융 우대 지원 ❷ KDB넥스트라운드 등 투자설명회 연계
수출입은행	11.29	❶ 수출입 금융거래 우대 - 수출초기기업 간편심사, 수출계약액의 90% 대출, 금리 0.2~0.3%p 우대 ❷ 주요 공급망 관련 업무협력 ❸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협력